

과수 묘목 건강하게 키운다...무병 묘목 인증 신청 시작

바이러스 없는 건강한 묘목 보급 확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묘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과수 무병화 인증' 신청을 받는다.

최근 과수에서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으로 생산량이 줄고 나무 생육이 나빠지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감염된 묘목을 사용할 때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묘목, 즉 무병 묘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병 묘목을 심으면 병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열매 크기와 당도가 좋아지는 등 품질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인증 신청은 서류로 진행된다. 묘목 생산업체는 건강한 묘목을 심은 뒤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무병화 인증 신청서, 종자업 등록증 사본, 생산·

판매 계획서, 재배지 배치도, 어미나부(모수) 종자 검사 증명서 등이다.

농진원은 바이러스 없는 묘목 보급을 확대하고 과수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운영 3년 차를 맞았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위해 2명 이상의 심사원이 함께 심사를 진행한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현장 심사에서는 실제 재배 환경을 살핀다. 이어 품질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무병 묘목은 조직배양으로 생산하거나 바이러스 검사를 거쳐 건강 상태가 확인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미나부에서 과실이 열리는 가지와 뿌리를 담당하는 가지를 선별해 절단한 뒤,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



▲무병묘 증식 작업

친 묘목만이 공식적으로 무병 묘목으로 인정된다.

과수 무병화 인증 제도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주요 과수 묘목이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감염 없이 건강하게 자랐는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표를 부여하며,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돼 묘목 생산업체에 중요한 인증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인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 심사를 받

면 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인증받은 묘목은 처음 심은 자리에서 옮겨 심으면 안 되며, 판매할 때는 기준에 따라 인증표를 붙여야 한다.

농진원 김종규 팀장은 "무병 묘목 보급을 확대하는 일은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무병화 인증은 과수 산업의 경쟁력과 재배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인 만큼, 묘목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NH농협금융,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실시

토마토 수확·농촌 환경정비로 구슬땀

NH농협금융(회장 이찬우)은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임직원 봉사단 약 40여 명과 함께 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과 연계해 농업·농촌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NH농협금융지주 이찬우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다원농장 백승준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산농협 이기택 조합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식량원-농관원, '벼 품종 판별 협력' 강화

벼 품종 판별 연구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22일 본원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벼 품종 판별 연구 협동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 체계를 확대·강화한다.

과 유전정보를 제공하고, 농관원은 이를 기반으로 판별 체계를 보완해 신종종이 유통 현장에 도입되는 즉시 정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고 체계적인 품종 판별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판별 기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 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웅 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장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품종 판별 기술의 정밀도와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과학적 품질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3년 '벼(쌀) 품종 관련 연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 연구와 연구 정보 교류를 통해 현장 중심의 품종 판별 기술 활용도를 높여왔다.

최근 쌀 소비는 '지역' 중심에서 '품종'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구매 시 품종명을 확인하는 소비자 비율은 2021년 12.3%에서 2024년 16.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일 품종 쌀 유통 확대와 품종별 특성 중심의 소비 정책이 추진되면서, 과학적

특히 신종종 개발 단계부터 유전정보를 공유하며 판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와 농관원 시험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협회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협력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벼 (벼싹)

앞으로 양 기관은 ▲신종종 종자 및 유전정보 공유 ▲품종 판별 지침(매뉴얼) 개정 ▲판별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신종종의 육성 이력

스 저장 연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공사는 이달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대학시험포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생명영지를 첨단 농업 연구·실증과 인재 양성이 결합된 거점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재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장은 "새만금 간척지가 농업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원, 종자 위수탁 정선 사업 기관 모집

미·맥류 각 500톤 규모 정선 사업 시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종자 정선 시설이 없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종자 위수탁 정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진원이 보유한 전문 종자 정선 시설을 외부에 개방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겪

는 종자 정선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종자 정선은 수확한 종자에서 불순물이나 불량 종자를 골라내는 과정으로, 종자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단계다.

정선 지원 품목은 맥류와 벼이며, 품종별로 최소 5톤부터 최

대 500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신청 품종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품종별 신청 가능 물량을 지정할 것이다.

정선 작업은 맥류의 경우 8월부터 9월까지, 벼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 과정에서 협의해 정한다. 비용은 톤당 약 15만

원 수준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까지다. 공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진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원 양민호 종자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품질 좋은 종자를 확보하고 종자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대학시험포 3개 대학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새만금 농생명영지 5공구 내 34.3헥타르(ha) 규모의 대학시험포를 운영할 대학으로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영지를 대학에 무상 임대해 농업 분야 연구와 교육·훈련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

재 전북대학교(35.9ha)와 한국농수산대학교(10.6ha)가 부지를 임대해 첨단 농업 교육과 간척지 토질 개선, 배수 상태 점검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성과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와 공사는 신규 부지 34.3ha를 추가 확보하고 이달 초 공모를 진행했으며,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사업 역량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 심사한 결과 3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군산대학교(9.5ha)는 간척지 기반 기능성 작물 연구와 현장형 농생명 교육을 운영하고, 원광대학교(20.1ha)는 토양개량과 한약재 간척지 적응성 평가 등 약용작물 재배 연구를 진행한다. 전남대학교(4.7ha)는 인공지능 기반 생육 모니터링과 미생물 활용 온실가

스 저장 연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공사는 이달 중 선정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대학시험포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생명영지를 첨단 농업 연구·실증과 인재 양성이 결합된 거점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재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장은 "새만금 간척지가 농업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

회원법인명단